

敦宗錄 發刊에 즈음하여

惟吾 坡州廉宗은 그淵源이 長々悠久하고 系統이 傳々連綿할뿐만 아니라 祖先의 遺志를 繼承하여 淸風之德을 家道로 삼고 仁義와 禮智를 崇尚하여 왔는 것이다. 自古로 同性同本은 百代之親이라 하였거니와 同孫間에는 先祖께서 물여주신 無形의 理智와 氣質이 흐르고 있는 것이며 無言의 意思가 疎通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長久한 歲月의 흐름과 世態의 變遷에 따라 一定한 版圖內에서 攝居하지 못하고 散在各地하게 되므로 因하여 情誼와 親分이 疎忽하게 됨은 同祖 同根의 後孫으로서 實로 慨嘆하지 않을수 없는 現實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고장 全南을 中心으로 居住하고 있는 僉宗의 身上을 明示하여 同族間의 親睦과 團合을 一層鞏固히 하고 崇祖思想과 家道振作의 氣風을 造成하기 爲하여 族宗 淳鎬氏가 家事를 不顧하고 資料蒐集에 不徹晝夜 努力하신 精誠과

財政難에逢着하여冊字發刊에隘路가 많았으나族宗根洙(寶城)氏의愛族하신見地에서의財政的支援으로敦宗錄을編纂發刊하게 되었음을僉宗과 더불어多幸으로여기는바이며그勞苦에對하여感謝의말씀드리는바이다

끝으로이冊字는短時日間에名單蒐集과編纂을하게된關係로이冊字에收錄되지못한僉宗도許多할것이고体系的整備나編纂製本等에도未備한점이없지않을것이라推料되오나此後同宗間의間隔없는連絡과協議로서補充再版키로하고于先이冊字가吾等族宗의敦睦과親合의伴侶가되었으면幸中幸이라여기는바이며僉宗諸位의健勝하시기를祈願하면서本敦宗錄頒布에盡力하여주심을바라맞이않습니다

一九六五年 五月 日

全羅南道保健社會局長 宗人 東 贊 謹識